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11월 21일



복음 나누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왕 대축일(11월 21일)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요한 18,33 L -37)



사랑과 연민의 왕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예수님께서서는 비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사랑과 연민의 왕이십니다. 황금 빛 찬란한 슬픔의 빛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염려하시는 당신의 눈동자를 마주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8장 33~3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33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시오?" 하고 물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35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36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37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 18,36~37)

우리는 가톨릭신자로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8,37~38)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권력과 힘을 가지려던 수많은 왕과 권력가들이 이룬 흥망성쇠의 역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의해도 역사를 주도한 인물들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권력의 희생양이 된 민초들의 삶과 억울하게 당한 소수의 역사는 왜곡되고 억압되며 멸시당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의 권력에 희생된 이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촌에는 여전히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이들이 많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들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권 의식이 성장하고 있고, 권력의 횡포에 대한 제재와 감독은 물론 공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 의식도 커 가고 있습니다. 정경 유착과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목마른 시민들이 이룬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도 세계사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여전히 권력의 시녀로 살아오며 잘못된 이념 논쟁의 희생양이 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속의 역사에서는 실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2천 년이 지난 오늘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신자들의 순교와 영웅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권능의 상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시는 선언은, 세상이 완성되는 날까지 교회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복음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